

## 한국 아동문학 100년의 ‘최대 로맨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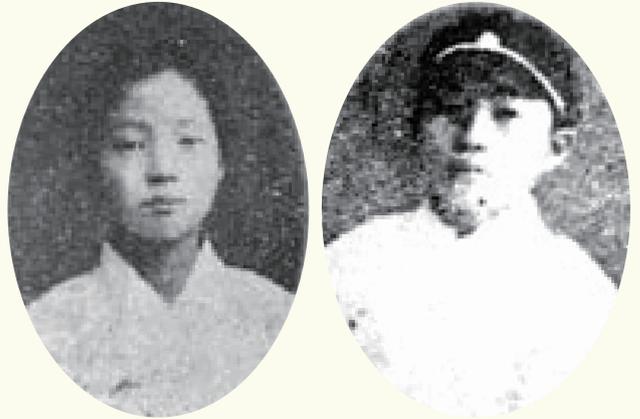
### 「오빠생각」의 소녀, 「고향의 봄」 소년을 만나다

뜸북뜸북 뜸북새 눈에서 울고  
 삐죽삐죽 삐죽새 숲에서 울 제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며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기럭기럭 기러기 북에서 오고  
 귀뿔귀뿔 귀뚜라미 슬피 울건만  
 서울 가신 오빠는 소식도 없고  
 나뭇잎만 우수수 떨어집니다.

어린이운동에 헌신했던 방정환이 창간한 잡지인 『어린이』 1925년 11월호에는 수원 북수리 125번지에 사는 열두 살 소녀 최순애(1914~1998)가 쓴 「오빠생각」이라는 동시가 실린다. 그다음해 4월호에는 마산 사는 열여섯 살 소년 이원수(1911~1981)가 지은 「고향의 봄」이 실린다. 최순애의 「오빠생각」은 작곡가 박태준이 1930년에, 이원수의 「고향의 봄」은 흥난파가 1927년에 곡을 붙여 세상에 내놓았고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동요가 되었다.

이원수와 최순애는 『어린이』라는 잡지에 실린 서로의 동시를 통해 알게 되었고, 곧 친구가 되어 칠 년 동안 편지를 주고받았다. 이원수와 최순애



잡지 『어린이』에 실린 최순애와 이원수

가 좀 더 가까워지게 된 것은 ‘기쁨사’ 동인이 된 뒤부터였다. ‘기쁨사’는 몇 해 동안 『어린이』 잡지에 동시를 발표해 온 사람들끼리 만든 문학 동인이었다. 서울을 비롯해 수원, 대구, 울산, 마산 등지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한자리에 모인 적은 없으나, 편지로 소식을 전해 문학 활동을 함께하였다.

1935년, 어느 덧 결혼을 할 나이가 된 두 사람은 수원역에서 첫 만남을 약속하였다. 최순애는 약속한 시간에 기차역으로 나가 이원수를 기다렸다. 이윽고 기차가 도착하였다. 하지만 사람들이 죄다 플랫폼을 빠져나왔는데도 끝내 원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그 무렵 경제적 곤란을 이유로 여러 곳의 결혼중매를 마다해 오던 터이었지만 오랫동안 정다운 편지로 사귀어 온 최순애를 모른 채할 수 없어 만나 이야기부터 해 보자 하고 편지로 수원행을 알렸던 것이다. 나는 편지에 내가 입고 가는 양복의 빛깔과 소지품을 일러 주어 수원역에 나오겠다는 최순애에게 얼른 알아볼 수 있게 써 보냈다. 이렇게 해서 내일 오후 기차를 타고 모레 아침 일찍 수원역에 닿기로 되어 있었는데 뜻밖에도 나는 함안경찰서 형사에게 붙들려 취조를 받고 어두컴컴한 유치장에 갇히는 몸이 되고 말았다. …… 그러나 수원역에서 나를 기다리고 햇걸음을 하고 돌아갈 최순애를 생각하니 기가 막혔다. 누가 이 사정을 알려 주거나 하겠는가. 답답할 뿐이었다.

-이원수, 「흘러가는 세월 속에」 중에서

이원수는 수원으로 떠나기 전날 ‘함안독서회 사건’으로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는 몸이었다. 그는 경찰서에서 한 차례 취조를 받은 뒤 검찰로 옮겨졌고, 거기서 또 심문을 받고 재판에 부쳐지고 하는 사이에 한 해가 지나갔다.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감옥살이를 마친 이원수는 고생을 한 탓에 몸이 수척해지고 아픈 데가 많았다. 하지만 그에게는 1년 전 순애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가장 절실한 일이었다.

이원수를 기다리는 최순애에게 집안에서는 “그런 사람 위험하니 다른 데로 시집가라.”고 했으나 다행히 오빠 최신복이 감싸 주어 견디어 낼 수 있었다. 이 사건은 도리어 그들의 사랑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1936년 6월 이 둘은 결혼을 하였다. 이로써 한국 아동문학계의 대표적인 부부 문학가가 탄생하였다.



최순애와 이원수 가족(디지털양산문화대전)

## 서울 가신 오빠, 최신복

최순애가 「오빠생각」에서 그렇게 보고 싶어 한 사람은 친오빠 최신복(1906~1945)이다. 최영주라는 필명으로 더 알려져 있는 최신복은 배재 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에 유학하였다. 최신복은 귀국 후 수원에서 화성소년회를 이끌며 방정환을 초대하여 동화구연회를 여는 등 소년운동에 앞장섰다. 동화구연회에서 방정환의 얘기를 듣고 입회 순사가 올었다는 그 유명한 일화도 화성 소년회 행사에서 있었던 이야기다<최영주, 「순검과 소과」, 『어린이』 1931년 8월호>. 「오빠생각」의 가사 중 비단‘구두’는 처음에 비단‘맹기’로 지은 것을 최신복이 고쳐 주었다고 한다.

동아일보사 수원지국 기자였던 최신복은 방정환의 부름을 받고 1929년 개벽사에 들어가



최신복

『어린이』, 『학생』, 『소년』 등의 잡지 편집을 맡았다.

1931년 방정환이 세상을 뜨고 5년이 지난 1936년, 최영주는 윤석중, 정순철, 마해송, 이정호 등과 뜻을 모아 '소파 묘비 건립 모금 운동'을 벌여 망우리 아차산에 묘와 묘비를 건립하였다. 또한 자신이 편집 및 발행인으로 있던 박문서관에서 『소파전집』을 편찬하는 데 앞장섰다.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 최경우가 1937년 명을 달리하자 소파 묘 아래쪽에 아버지 묘소를 마련하였다. 평소 방정환의 후원자였던 아버지와 소파의 묘를 자주 찾아보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그 뒤 모친과 갓 나서 죽은 아들도 이곳에 묻었고, 1945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그도 “존경하는 선배 소파의 밑에 묻어 달라.”는 유언에 따라 방정환 바로 앞에 묻혔다. 최신복의 묘비에는 그가 쓴 「호드기」가 새겨져 있다.

누군가 부는지 꺾지를 맡아요.  
마디가 구슬픈 호드기오니  
호드기소리를 들을 적마다  
내 엄마 생각에 더 슬습니다.

최순애 가족의 동시 사랑은 최순애의 여동생 최영애로 이어졌는데, 10살의 어린 나이에 최영애가 쓴 「꼬부랑 할머니」도 『어린이』 잡지에 입선되었다.

꼬부랑 깡깡이 할머니는  
집행이 집고서 어데 가나  
꼬부랑 고개를 넘어가서  
술방울 좇으러 가신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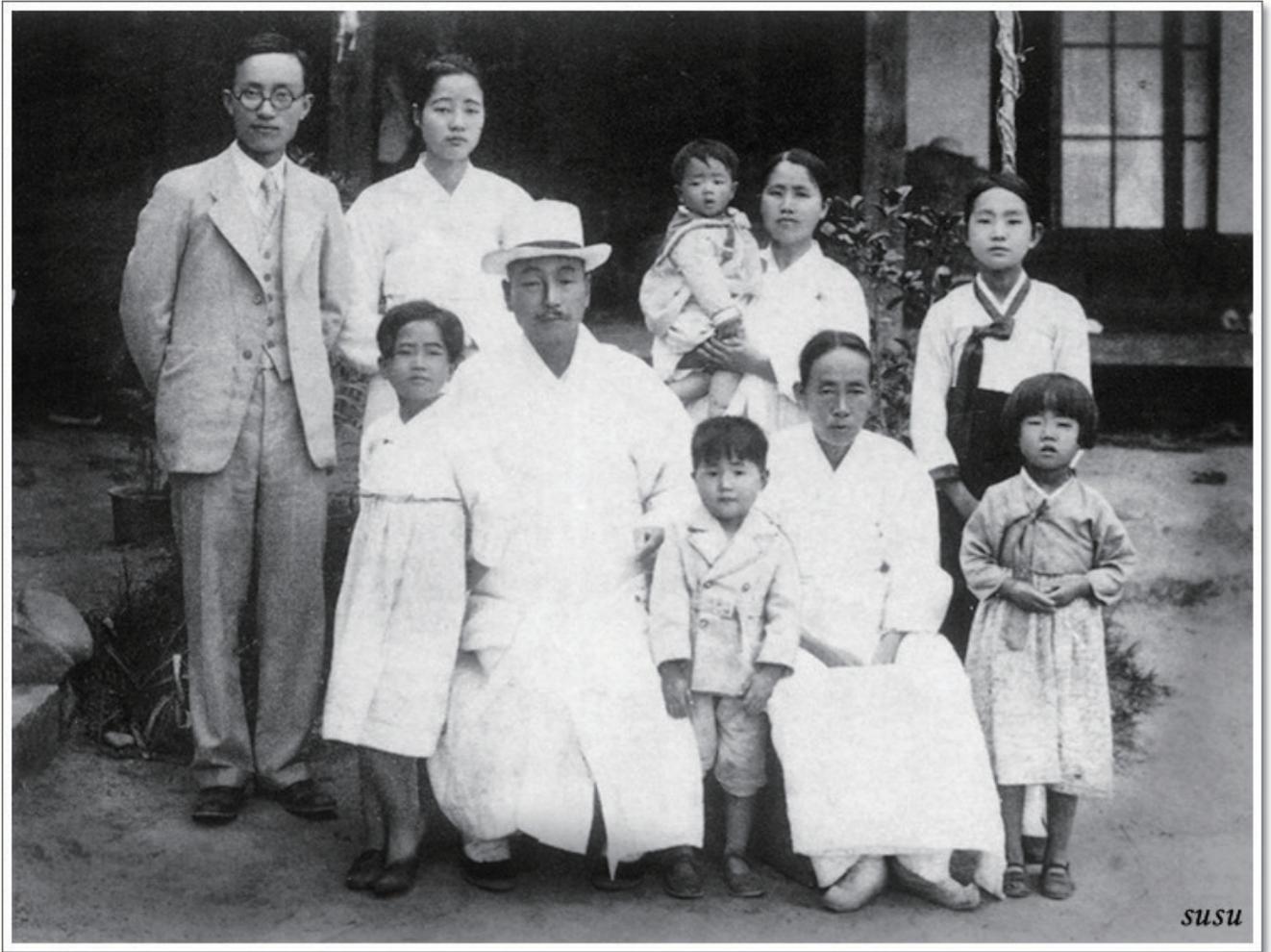
꼬부랑 깡깡이 할머니는  
저녁에 어데서 혼자 오나  
꼬부랑 고개를 넘어가서  
술방울 이고서 오신단다.

- 최영애, 「꼬부랑 할머니」 전문  
〈『어린이』, 1925년 4월〉

이렇듯 수원의 다정한 오누이 최신복, 최순애, 최영애의 시는 우리 민족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한국 '아동문학 100년'에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었다.

### 「고향의 봄」 노래비는 있고, 「오빠생각」 노래비는 없다

1968년 10월 27일 수원 팔달산에 이원수 작시, 흥난과 작곡의 「고향의 봄」 노래비가 세워졌다. 노래비 건립은 수원군 출신(현 화성시 남양읍 활초리)인 흥난파를 기념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흥난파 집안은 이곳에서 오랫동안 세거해왔다. 또한 수원에서는 흥난파의 호를 딴 난파음악제가 1969년부터 개최되었고, 난파음악제 개최에 맞춰 난파기념사업회에서는 난파음악상을 시상하였다. 난파음악상은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인 음악인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1968년 제 1회 수상자인 정경화에 이어 백건우, 정명훈, 강동석, 금난새, 장하나 등 수많은 거장들이 이 음악상을 수상하였다.



결혼 후 수원 최순애의 집에서 찍은 가족사진(<http://blog.daum.net/youxiaonan/299>)

뒷줄 좌로부터 이원수, 최순애, 최신복의 부인 차원순, 최순애의 막내 여동생/앞줄 최순애의 아버지 최경우, 어머니 마씨, 그리고 최신복의 자녀들

반면 최순애를 비롯해 최신복·최영애 남매는 수원 지역에서 완전히 잊힌 존재였다. 이들 남매와 수원의 관계는 『수원시사』(2014년 발간) 편찬 과정에서 밝혀졌다.

최순애 가족이 수원에 정착한 시기와 내력은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아버지 최경우는 수원 동신교회 신자였는데, 동신교회는 플리머드형 제단에 동참한 일본인 노리마츠 마사야스(乘松雅休)가 수원에 설립한 교회이다. 1900년 수원에 정착한 노리마츠 마사야스는 수원 최초의 일본 이주민이자, 수원일본인회 초대 회장이었다. 최경우는 1남 5녀를 두었는데, 아들인 최신복은 1945년 40세의 젊은 나이에 사망하였고, 네 딸들은 결혼 후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

다. 이로써 수원과의 연고가 점차 끊기게 되었고, 수원 사람들의 기억에서 멀어져 갔다.

북수동에 살던 최순애가 오빠 최신복을 그리워하며 「오빠생각」을 지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사)수원문화도시포럼은 「오빠생각」 노래비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수원이 한국 근대 아동문학의 산실이었음을 알리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글 홍현영 수원학연구센터 연구원